

# ‘洪純彦이야기’의 樂府詩的 變容 양상과 의미

김 영 숙\*

## <목 차>

1. 머리말
2. ‘洪純彦이야기’와 樂府詩의 史話
3. ‘洪純彦이야기’의 樂府詩的 變容 양상
4. 樂府詩的 變容의 의미
5. 맺음말

## 【요 약】

‘홍순언 이야기’는 39개 문헌에 전하는, 전승력이 강한 야담으로 조선후기 작가들에 의해 악부시로 변용되었다. 이복휴의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보은단」과 박치복의 『대동속악부』에 실려 있는 「보은금」이 그것이다. 이복휴가 작품 앞에 기록한 사화는 같은 계열의 야담과 기본 구조는 같다. 그러나 등장 여성의 성명이 밝혀져 있고, 사건의 전개과정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점 등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이를 수용한 「보은단」은 전반부 5언 6구, 후반부 7언 8구로서 은혜를 과도하게 갚으려다가 남편을 죽게 한 여인을 폄자하는 악부시적 변용을 했다.

박치복의 작품 사화는 같은 계열의 야담과 기본 구도는 같다. 그러나 형제의 인연을 맺고 팔에 바늘로 성명을 새기는 등 부분적인 차이

\* 대구한의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가 많다. 이를 수용하여 변용한 「보은금」에는 작품의 사화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시의 구성과 변용 양상에는 새로운 면이 나타나 있다. 1편 3수의 연작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3수를 균형적인 구성이 아닌 ‘응축1-응축2-확대’의 불균형적인 형태를 구성하여 새로운 연작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신의를 찬양한 것이다. 특히 제 3수는 주인공들의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대화형식을 핵심 구성으로 하고, 기타사건, 배경, 분위기를 서술하는 삽입구를 보조적 구성으로 하는 변용을 했다.

‘홍순언 이야기’의 악부시적 변용의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이복휴와 박치복 모두 약식과 권도에 의한 성률로 한국적 악부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수용하여 변용한 작품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1. 머리말

이야기는 입으로 구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헌에 기록하여 그것이 다른 문헌에 옮겨지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이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 변이 양상은 다양하여 단락이 가감, 변이되기도 하고 화소가 가감, 변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는 대부분 산문의 서사형태로서 이어져오고 있다. 이야기들 중에는 그 이야기의 성격과 전승력에 따라 그 층위가 여러 문헌에 다양하게 전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단순한 경우도 있다. 전승력이 강할수록 문헌과 구전 양쪽에 전해지며 허구적인 요소가 삽입되어 역사를 넘어 문학의 형태를 이루기도하고 나중에는 거의가 허구로 변이되어 소설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되기도 한다. 야담이나 설화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한 소설은 소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작품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기에 연구 업적도 많이 이루어졌다.

서사 산문의 이야기를 운문인 악부시로 변용한 경우도 많다.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영사악부류에 서사 산문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쓴 시가 많다.

역사이야기 중의 하나인 ‘洪純彦 이야기’는 여러 문헌에 전하는, 전승력이 강한 야담이다. 모두 산문으로 전하는데 李福休와 朴致馥은 ‘홍순언 이야기’를 작품 앞에 써 놓고 이어서 악부시를 썼다. 이복휴의 『海東樂府』에 실려 있는 「報恩段」과 박치복의 『大東續樂府』에 실려 있는 「報恩錦」 그것이다. 따라서 「보은단」과 「보은금」은 홍순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악부시이다. 서사체인 산문을 악부시인 운문으로 변용시킨 것이다. 특히 「보은금」은 현전하는 한국 악부시 중 최장편인 5언 264구이다. 산문이 이러한 운문으로 변용된 것은 문학 장르의 교섭과정에서 볼 때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종 문헌에 전하고 있는 홍순언 이야기의 핵심을 비교 검토하고, 「보은단」과 「보은금」의 악부시적 변용양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2. ‘洪純彦 이야기’와 樂府詩의 史話

洪淳彦의 가계에 대해서는 정명기 교수의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논술되어 있다. 南陽洪氏, 洪殷悅의 16세손으로, 부친은 贈嘉善大夫 紅謙이다. 그의 조부 慶昌이 안동부사를 지냈고, 종조부 吉昌이 현감을 지냈으며 백부 諶이 司譯院, 중부 謹은 僉中樞, 숙부 愼은 경주부윤을 지냈다.<sup>1)</sup> 따라서 홍순언은 비교적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출신이 비미하거나 서얼이라고 했고 관직이 중인이 주로 했던 역관으로

1) 정명기 교수가 남양홍씨 예사공파 족보를 보고 작성한 세계도를 참고했다.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사, 1996, p 68)

시작했던 것으로 보면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선조를 존송하는 의식이 강한 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사행시에는 ‘上通事’라는 직책으로 두 가지 큰 업적을 남겼으니 종계변무와 임란원병이다. 종계변무를 해결하여 벼슬이 높아지고 노비와 전택을 하사받고, 光國二等功臣, 唐陵君에 책봉되었으며 후에 羽林衛將이 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림위장으로 있을 때는 그의 출신이 비미한 서열에서 나왔기에 轉職 또는 罷職해야 한다는 건의가 선조에게 올라갈 정도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sup>2)</sup>

이러한 사실로 보면 홍순언은 실제 인물이고 그에 관한 중요 사건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후세에 전해지면서 부연해지는 과정에서 허구적 사실이 첨가되고 확대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변이된 것이다.

‘홍순언 이야기’는 기존의 연구에서 ‘-전’ ‘-기사’ ‘-이야기’ 등으로 개념을 통일할 수 없는 야담류에 속하며<sup>3)</sup>, 각종 문헌에 기록으로 전하고, 구전으로도 전하여 광범한 전승력을 지니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다른 서사문학처럼 허구적인 요소가 첨가되는 등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재창작하여 소설이라 할 수 있는 『李長白傳』이 출현하는가 하면 단문 또는 장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악부시의 소재로 채택되면서 작품과 함께 작품서문인 사회로 병기되어 전해지고 있다. 서사문학 연구자들에게 야담으로 인

2) 『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신묘 4월조, “...羽林衛將 洪淳彦 係出卑微 不合禁軍之帥 請命遞差...” 동년 5월조 “...羽林衛將 洪淳彦 係出庶孽 爲人所賤...請并命遞差...”

3) 李慶善의 「洪純彦傳 研究」, (『한국학논집』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와 정명기. 「洪純彦 이야기의 갈래와 그 의미」(『동방학지』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와 金碩會의 「洪純彦 逸話의 轉變過程에서 본 西浦의 文學世界」(『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986)에서처럼 용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식되어 중요한 야담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악부시로 변용된 이복휴의 「보은단」과 박치복의 「보은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보은금」의 서문 즉 산문으로 된 작품 사화인 ‘홍순언 이야기’ 만을 다른 문헌에 전하는 것과 대비하여 변이 양상을 언급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sup>4)</sup> 이복휴의 「보은단」작품 사화인 ‘홍순언 이야기’는 정명기 교수가 광범하게 조사하여 대비한 39종의 문헌<sup>5)</sup>에도 빠져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복휴와 박치복의 작품 사화는 ‘홍순언 이야기’를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어떤 변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홍순언 이야기’는 문헌에 따라 소략하게, 또는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으며, 단락별 첨가, 생략한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 複雜多岐하다. 어느 한 문헌도 완전예 가까운 내용이 없다. 때문에 이복휴, 박치복의 사화를 제외한 여러 문헌을 망라하여 총체적 내용 단락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복휴와 박치복의 작품 사화를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

4)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사, 1996.

5) 정명기, 앞의 저서 pp66-67에 기록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於于野談』, 『菊堂俳語』, 『公私見聞錄』, 『西浦漫筆』, 『星湖僊說』, 『續齊該誌』, 『擇里誌』, 『通文館志』, 『燃藜室記述 別集』, 『熱河日記』, 『溪西漫錄』, 『海東惇史』, 『奇聞叢話』, 『靑丘野談』, 『東野彙集』, 『瑣編』, 『鷄山談藪』, 『里鄉見聞錄』, 『唐陵遺事』, 『大東奇聞』, 『中韓詩史』, 『東野輯史』, 『唐陵君遺事徵』, 『韓國口碑文學大系』1-9, 『韓國口碑文學大系』2-2, 『韓國口碑文學大系』4-5, 『韓國口碑文學大系』6-4, 『韓國口碑文學大系』7-8, 『雪橋漫錄』, 『晚醒集』, 『漢京識略』, 『海東奇話』, 『海東聞見錄』, 『叢話』, 『李長白傳』, 『李長伯전』, 『季氏報恩錄』, 『洪彥陽義捐千金說』, 『마원철녹』

1. 시대와 순언의 사람됨을 간단히 기술,
2. 순언이 일행과 함께 중국사행
3. 순언이 창루를 보고 싶은 소원을 酒婆에게 전함
4. 酒婆의 매개와 대화
5. 주과 매개인 등장
6. 순언이 여인을 보고 미모에 감동
7. 순언과 여인의 대화
  - 7-1. 여인이 자신의 가계와 어려운 처지 및 정황설명
  - 7-2. 순언이 여인의 딱한 사정 듣고 은자를 줌(금액은 각 이본에 따라 다름)
  - 7-3. 순언과 여인이 은자 때문에 실랑이를 벌임(주려는 순언과 받지 않으려는 여인)
8. 여인의 은자 수령과 인사
9. 사행 일행의 반응
10. 순언이 은자 때문에 곤란을 겪음
11. 순언이 재차 중국에 들어감
12. 예부시랑의 청대
13. 예부시랑의 부인이 된 여인의 환대
14. 종계변무의 해결
15. 부인이 보은으로 ‘보은’이라 새긴 비단을 줌
16. 보은단동의 유래
17. 임진왜란때 명군의 원병
18. 순언의 封君
19. 순언의 사망
20. 순언의 후손

이러한 ‘홍순언 이야기’의 총체적 단락을 전하는 문헌을 대비적으로 고찰하여 나눈 것이다. 문헌 가운데서도 鄭泰齊(1612-1669)의 『菊堂

俳語』와 鄭載崙(1648-1723)의 『公私聞見錄』, 安錫傲(?-1782)의 『雪橋漫錄』과 朴致馥(1824-1894)의 『報恩錦』 史話가 각각 큰 차이점과 나르대로의 특색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국당배어」가 가장 많은 작품군의 중심 문헌으로 그 줄거리가 홍순언 이야기의 대표성을 지닌다. 이 네 문헌의 기록을 상호 대비해 면밀히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6)</sup>

이복휴의 『해동악부』 「보은단」사화인 ‘홍순언 이야기’를 대비적으로 고찰한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단락별 중요 내용이 같으면 같은 단락이라고 간주한다. 많은 부분이 다르면 부연 설명을 가한다.

1, 2, 3, 4, 5, 6단락은 報恩段 사화에서도 대동소이하다. 7-1단락에서 報恩段사화는 여인의 성명이 ‘沈香蘭’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10단락 홍순언이 은자를 여인에게 준 뒤 사행은 일행으로부터 비웃음을 산 후 곤란을 겪는데, 보은단 사화에서는 이 외에 고생이 30년이나 이어졌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11단락의 임진왜란으로 인해 홍순언이 재차 중국에 들어가는 것도 ‘선조 갑신년....’ 등 구체적인 연대기입이 특이하다. 12, 13단락은 다른 본과 대체로 같고 14단락의 종계변무의 해결에서는 황정옥, 황련, 순언 등 사신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도 특색이 있다. 문제해결 후의 사건과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신종황제가 옥새를 찍은 공문을 내려 대명회전을 개정할 뜻을 보이고, 우리나라에 『大明會典』을 반포하니 선조가 크게 기뻐하여 홍순언을 光國功臣에 기록하고 상을 많이 내렸다”는 雙行의 주<sup>7)</sup>를 붙였다. 15, 16, 17, 18단락은 대체로 같게 수용했는데, 16, 18단락은 註에서 밝혔다. 19, 20 단락의 내용은 보은단 사화에 없다. 이복휴 보은단 사화의 마지막 단락은 “임진왜란 때 石星이 원병하여 조선의 난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6) 정명기, 앞의 책 소항목 ‘홍순언 일화의 뼈대와 의미’에서 여러 문헌을 상호 대비하며 서사 단락과 뼈대를 밝히고 있다.

7) 神宗皇帝 賜璽書 夫示 改整會典之意 須布會典于我國 宣廟大喜 遂錄純彦光國功臣 賞賜亦多

의논을 주장하여 조선이 이에 힘입어 다시 안전하게 되었지만 뒤에 和議의 일로 죽음을 당했으니 우리나라가 원통하게 여겼다.”<sup>8)</sup>는 것으로 여러 이본에 없는 내용이다. 보충 설명을 위해 쌍행의 주를 붙였다. 이 덕형이 순언을 거느리고 연에 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 순언은 밥을 먹지 않고 읍소하니, 석성이 이를 주장했고, 經理使 丘楊鎬, 贊劃官 宋應昌 등 순언의 친객들이 적극 도왔다. 倭軍이 和議를 청하자 石星(東明)이 허락하여 沈惟敬을 일본에 보내어 平秀吉과 조약을 맺었는데, 정유년에 秀吉이 약속을 어기고, 재침하자, 명나라 황제가 석성, 심유경의 죄를 논박해 棄市했다는 내용이다. 이복휴의 보은단 사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다른 홍순언계 이야기에서는 볼 수 없는 기록이다. 따라서 이복휴의 보은단 사화도 홍순언계 이야기의 또 하나의 유형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朴致馥의 『晚醒集』에 실린, 「大東續樂府」의 ‘보은금’사화를 대비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명기 교수가 그 특징을 지적한 바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총체적 단락과 대비 고찰한다.

1단락에서 홍순언을 義州 驛人이라 했는데, 의주라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특징이다. ‘驛人’은 ‘譯人’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단락에도 순언의 사행에 의주 부자가 백금 천량을 주며 물건을 사 오도록 부탁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 이본들과 차이가 있다. 3, 4, 5단락은 수용하지 않았다. 주과의 소개를 받지 않고 바로 창루로 들어간다. 6, 7단락은 수용하였는데,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이본들과 구체적으로 다르다. 6단락도 비슷하게 수용했는데 순언이 취침하려 할 때 여인은 촛불을 등지고 울고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7-1단락은 총체적 단락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며 吳人이라 했고 여인의 부친이 서울에서 벼슬하다가 적의 모함을 받아 법에 의거해 죽었으며

8) 其後 壬辰倭亂 星復主出救之議 我國賴以再全 後星以和事被誅 我國冤之

법에 따라 유골을 고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또 가정이 어려워 몸을 팔아서라도 그 비용을 관출하려고 했으나, 여자가 행동함에 의리상 두 남자를 섬기지 않기를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관문의 기찰이 엄하기에, 나무하고 불 때는 종이 되어서라도 사정을 기다려 부친유골 이장의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순언을 仰慕하기에 자결하여 來生の 인연을 맺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는 동양 여인의 미덕인 열녀적 모티프가 함용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순언의 대답도 이본들과 다르다. 7-2단락도 순언은 여인의 말을 듣고 놀라 자신이 하국의 천한 종으로 여인의 존엄을 모독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니 돈전대를 들테니 이것으로 일을 치루라고 했다. 미인을 보고 동침하려는 정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죄하며 죄송하고 미안해한다. 7-2와 7-3은 핵심적인 내용과 표현이 유사하다.

8단락에는 여인이 은자를 받고 고마워 同氣의 결의를 하고 ‘哥哥’라고 부르며 바늘로 팔에 성명을 새긴 점이 특이하다. 바늘로 팔에 성명을 새기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문학적이다. 9단락은 수용되지 않았다. 함께 간 사행들이 은자를 주고 그냥 돌아온 순언을 보고 어리석음을 비웃는 내용이 이본들에는 있으나 보은금에는 없다. 10단락은 고을의 부자가 자신이 준 돈을 버린데 대해 꾸짖는 내용과 그로 인해 떠돌아다니기를 오래한 점이 첨가되어 있고, 11, 12, 13단락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수용이 되어 있다. 14단락의 宗系辨誣의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는데 이 점은 이본들과 큰 차이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사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의미도 지닌다. 15단락은 다른 본들처럼 ‘보은’ 두 글자를 수놓은 비단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단락도 생략되었고 18단락도 원래 ‘唐陵君’이던 것이 ‘唐城君’에 봉해지는 것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변이과정의 착란으로 보인다. 19, 20단락의 내용도 생략되었다.

## 3. ‘洪純彦 이야기’의 樂府詩的 變容 양상

이복휴가 홍순언 이야기를 악부시로 변용시킨 양상을 보기로 한다. 이복휴의 작품은 장편이 아니기에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다룬다.

李福休의 「報恩段」

君有橐裡金	“그대 전대 속엔 금이 있었는데,
一散層雲薄	한번 흩어 쌓인 구름 얇게 되듯 했어요.
妾有機頭錦	저에겐 베틀머리 비단 있으니,
繡出鮫珠滴	상어 구슬 방울 모양 수를 놓았소.
貯君綠玉箱	그대 푸른 옥상자에 보관하고,
飾君紅絲囊	그대 붉은 실 전대를 장식하세요.”
聚星門外青樓窓	취성당 문밖 기생집 창가에 있던,
依稀記得東家郎	어렴풋이 동쪽집 낭군 기억하겠네.
君心有義不有金	“그대 마음엔 의로움만 있고 돈이 없는 걸,
妾自難忘君實忘	저는 잊기 어려운데 그대는 정말 잊으셨나요.
君爲國事我爲君	그댄 나라일 하지만 저는 그대를 위해,
勸起石郎生主張	석씨 낭군께 권하여 주장토록 했어요.”
婦恩酬盡恩生害	부인의 은혜 극진히 갚다가 은혜에 해가 생겨,
畢竟東市冤魂傷	필경엔 저자에서 죽었으니 영혼은 얼마나 아프고 원통하리.

우선 제목의 報恩段은 報恩緞洞의 유래로 보아 報恩緞이 옳으나 전승과정에서 변이된 것이라 생각된다. ‘홍순언 이야기’를 ‘은혜를 갚은 비단’이란 제목으로 변용한 것에서부터 작가 이복휴가 생각한 시상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홍순언 이야기의 일부를 수용하고 작가의 서정을 덧붙인 것이다. 소설이 아니고 시이기에 서사구조상의 사건과 인물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전반부 5언 6구는 燕지방의 여인 沈香蘭이 조선의 역관 홍

순언을 만나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홍순언의 도움으로 소원을 이루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비단을 주면서 말한 심향란의 말을 시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주인공인 그대 즉 홍순언과 첩 즉 심향란을 상대적으로 조용시키고 돈이 든 전대와 은혜 보답의 비단을 조용시켜 이야기의 주인공과 핵심 사건만을 응축적으로 표현했다. 비단에 ‘報恩’이란 글자를 새겼다는 사화의 내용은 상어 구슬 방울 모양의 수를 놓았다고 했다. 악부시라 표현의 제약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상어 구슬 모양으로 보은의 글자 모양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1·3구와 2·4구의 격구대에서 느끼는 그대(君)와 나(妾)의 조용미는 근체시가 아닌 악부시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이다.

후반부 7언 8구는 비단 이야기가 끝난 뒤 임란 때 원군의 내용을 시로 구성한 것이다. 5언에서 7언으로 바뀌면서 지난 날 청루에서의 기억을 되살려 시상을 다시 환기시켜 시간과 공간을 전반부와 연결이 되도록 하였다. 11구부터는 석성을 등장시켜 원군으로 조선을 도와 준 보은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석성이 棄市 당한 슬픔을 끝으로 맺었다. 부인의 은혜 갚다가 화를 입었다는 것과 東市와 冤魂傷을 통해 이 작품의 풍격을 悲慨한 것으로 승화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부분의 작품 사화는 다른 홍순언계 야담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중요하게 다룬 것이었는데 작가 이복휴는 사화를 악부시에서도 수용하여 시적 변용을 통해 중요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 5언 6구는 순언이 2차로 燕지방에 들어갔을 때 심 여인이 순언에게 한 대화체 시이고 후반부 7언 8구는 임란시 원군에 대한 여인의 대화체 시의 핵심인데 7, 8구에서는 과거 청루에서의 회상이고 13, 14구는 석성의 원통한 죽음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과 슬픔이다. 작가 이복휴는 홍순언보다는 심향란의 입장에서 심향란의 시적화자가 되어 사화의 내용과 범주를 뛰어 넘어, 노래로 불러 보고픈 심정에서 새로운 시적 변용을 한 것이다. 이복휴 악부시가

다른 작가의 악부시와 다른 특징의 하나가 모든 작품 뒤에 산문의 사평을 붙인 것이다. 「보은단」뒤에도 사평이 병기되어 있다. 송대의 蘇軾과 曾公亮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어 후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 예를 들며 갚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음덕을 쌓으면 반드시 저승에서 갚아 준다고 했다. 만약 순언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갚음을 구했다면 이런 분명한 은혜갚음이 없었을 것이라 했다. 나에게 은혜 갚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구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상대방도 잊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보답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다. 이러한 의가 있었다면 홍순언이 어찌 일어세우지 못할까봐 걱정했으며 심 여인이 어찌 은혜를 못 갚을까봐 걱정했는가 올바른 의와 신이 없었다고 폄자했다.<sup>9)</sup> 홍순언의 칭에 대해 심 여인이 보은할 뜻으로 승낙하여 처리하다가 석상서가 화를 입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陰德冥報’를 하나의 진리로 여기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朴致馥의 「報恩錦」

박치복의 「보은금」이 실린 『대동속악부』에 대해서는 필자가 그 전반적인 성격을 언급하며 서사적 서정시의 실상을 밝히는 예문으로 다루었으며,<sup>10)</sup> 대동속악부와 현실인식을 핵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sup>11)</sup> 필자는 이번에 야담의 시적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을 다루면서 그간의 오탈자와 번역을 새로이 다듬는다. 박치복은 다른 영사악부 작가들과는 달리 28편의 작품 모두, 한 편을 세 수의 연작시

9) 李福休, 『海東樂府』 「報恩段」 “… 蓋施人於無報之地者 方爲陰德 必有冥報 若使純産(彦의 誤記인 듯 ; 필자 註) 施此恩而求此報 則豈得若此之的然乎 我有不求之心而救之者 義也 彼有不忘之心而報之者 信也 有此義則 洪何患不立 有此心 則沈何患不遂”

10) 拙著, 『韓國詠史樂府研究』, 경산대학교 출판부, 1998

11) 全智煥, 「晚醒 朴致馥의 ‘大東續樂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즉 ‘一篇三解’의 형식으로 썼다. 보은금도 마찬가지다. 작품을 보기로 한다.

君橐重如山	“그대 전대 무겁기는 산과 같고,
妾鎬賤如土	첩의 비단 천하기는 흙과 같습니다.
恩重那可報	무거운 은혜 어찌 갚아오리까,
物賤心獨苦	물건이 미천하여 마음만 괴롭습니다.
結草泣珠恨未能	은혜 갚고자 울어서 구슬이 나온다해도 한은 풀리지 않아,
兒女手中惟此已	아녀자 손에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我家夫婿最多心	우리집 남편은 인정도 많아,
手把紅羅酬婦氏	손으로 붉은 비단잡고 아내와 수창합니다”.

세 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홍순언의 도움으로 부친의 유골을 이장한 여인이 홍순언의 도움을 감사히 여겨 비단으로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의 서정으로 여인의 독백이다. 시적화자는 비단을 준 여인이다. 작가 박치복은 여인의 입장에서 홍순언에 대한 여인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대(君)와 나(妾)를 대응시켜 그대의 돈(橐)과 나의 비단(鎬)을 핵심어로 重 함과 賤함의 가치를 부여했다. 1,3구의 중은 산과 같다고 할 때는 무겁다는 뜻이 되겠지만 둘째구의 천의대로 보면 귀중하다는 의미로 重意語이다 일종의 詩眼이라 할 만하다. 앞의 5언 4구에서는 단조로우면서도 대장의 묘미를 살린 비유의 노래이다, 후반 7언 4구는 시상의 확산으로 여인의 가정과 남편까지 등장시켜 노래했다. 5구에서는 結草, 泣珠라는 말을 끌어와 은혜의 고마움을 극도로 확대시켰으며 이것으로도 보은의 한을 풀 수 없다고 했다. 여인이 생각한 은혜는 바로 작가가 생각한 것인데, 박치복은 여인의 고마운 마음을 대신 간절하게 나타냈다. 다음은 둘째 수이다.

小妹有哥哥	아가씨에겐 오빠가 있어서,
-------	----------------

故山歸父骨	고향 산으로 아버지 유골 돌려왔네.
東國有純彥	우리나라에 洪純彥이 있었는데
海外王師出	국외의 군대를 보내게 했네.
莫言屋漏無人觀	비새는 구멍으로 엿보는 사람 없다 말하지 마오,
天地鬼神須鑑汝	천지의 귀신이 너를 본다오.
誰知一夜倡樓事	누가 하룻밤 倡樓의 일을 알건가,
能使青邱重鼎呂	우리나라를 九鼎大呂처럼 중히 여기게 했으니,
于嗟純彥乎眞丈夫	아! 洪純彥 정말 대장부구려.

이 작품은 홍순언 이야기에 대한 작가의 서정이다. 내용은 사화를 1, 2구에서 용해해서 수용했을 뿐 나머지는 작가가 설정한 시적 변용 양상이다. 3구부터 마지막까지는 홍순언의 역할로 나라가 편안하게 된 데 대한 포양이다. 역사적 사평과 같은 작품의 해석이다. 다음에는 가장 장편인 본론의 시를 보기로 한다.

1 黃雀御黃花 五里一彷徨 .....	피꼬리는 국화를 물고, 五리에 한 번 방황을 하네. .....
15 老翁前致辭 此說言頗長 邑有新長者 洪姓貫自唐 其名曰純彥 20 身幹何堂堂 .....	늙은이가 전에 한 말, 이 이야기는 자못 다음같이 길어지네. 고을에는 새 부자가 있는데, 성은 홍씨 본관은 唐에서 왔다네. 그 이름은 純彥이며, 몸매도 당당하게 잘 생겼네. .....
59 闔門轉雙眸 60 有女恰端莊 .....	문을 열고 둘러보니, 단정하게 치장한 여인이 있네. .....
68 衾裯亦施行 夜深燈結穗 70 料理就匡床	이부자리도 펴 두었네. 깊은밤 등불은 이삭처럼 타오르고, 넓은 상엔 요리를 준비했네.

背壁低翠鬢  
紅淚流浪浪  
問汝何所憶  
問汝何所傷  
女亦無所憶  
女亦無所傷  
云何佳遇夜  
玉筋沾羅裳  
善懷如不開  
80客心何由康

.....  
愛之如金璧  
90呼以杜蘭香

.....  
96忠直陷死亡  
哀哀形影吊  
天日無晶芒  
遺骸在淺土

.....  
115悠悠此夜恨  
地老又天荒  
君若肯見錄  
訪我於北邙  
純彦得聞之  
120心中大悲痒  
僕本皂隸子  
乘氣頗劬勤

.....  
131美人大警慌  
妾自訴膈臆

.....  
140四海本同氣  
何必同爺孃

벽을 등지고 김푸른 머리 숙이고,  
구슬같은 눈물 똑똑 떨어지네.  
“당신 무슨 생각 나서 우시오,  
당신 무엇 때문에 슬퍼하오”.  
여인은 “생각한 바 없다” 하고,  
연인은 “슬픈바가 없다”네.  
“어찌 즐겁게 만난 이밤에,  
구슬같은 눈물로 비단치마 적시나요.  
좋은 회포를 풀지 않으면,  
나그네 마음인들 어찌 편안하겠소”.

.....  
금구슬 같이 사랑하셨고,  
杜蘭香같다고 불러 주셨다오.

.....  
충직하던 신하들을 죽음에 빠뜨리니.  
슬프고 외로워요,  
天日도 빛을 잃고.  
유해는 낮은 땅에 있고,

.....  
오늘밤 한이 끊이지 않으니,  
땅은 거칠고 아득히 멀기만 해요.  
그대 만약 기록한 걸 보시려면,  
북망산의 저를 찾아주세요”.  
순언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 속이 아프고 슬픔이 생겨,  
“나는 본래 종의 자식이라,  
기세를 타니 자못 마음이 급해지네요.

.....  
美人은 크게 놀라,  
“妾이 스스로 하소연합니다,

.....  
사방이 본래 同氣인데,  
어찌 꼭 부모가 같아야 하겠소.”

純彥默低昂  
美人孝烈全  
言談定非常  
今若不許此  
壞他歸親喪  
女子多偏性  
恐此事非祥  
避席應諾諾  
150美人起踉蹌  
百拜謝哥哥

美人色慘然  
160零淚滿雙眶  
行役尚愼旃  
平安使价將  
純彥還家去  
富人來慰觴

170此身幾見狀  
艱辛附行使

197俄然一府內  
騷聒如蝸蟻  
珠簾忽寨開  
200露出明月璫  
衣裳爛金紫  
玉佩鳴鏗鏘  
再三猶諦視  
翩然忽飛颺  
哥哥復哥哥  
執手驚跳踉  
歲月曾幾何

純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네,  
美人은 효성과 貞烈이 온전해.  
말하는 품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만약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부친 유골 돌려 올 수 없어요.  
여자는 성격이 편중되어,  
이일이 상스럽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달리 자리를 해서 말대로 응락하니,  
미인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백번 절하며 오빠에게 감사하니,

미인의 얼굴 슬픈 빛으로,  
두 눈에 가득히 눈물 떨어지네.  
“가시는 길 언제나 삼가고 조심하여,  
평안히 사신을 도우시오.”  
純彥이 집으로 돌아가니,  
부자가 와서 위로의 술잔을 나누네.

이 몸이 거의 죽음을 당할뻔 했습니다.  
어렵고 고생스러움에 사행을 따라 가니,

잠시 후 온 관부 안이,  
시끄럽기가 매미 우는 것 같네.  
갑자기 주렴을 걷으니,  
옥색의 밝은 달 같은 사람이 나타나네.  
의상은 찬란히 금빛 자주빛,  
패옥소리 쟁그랑 울리네.  
두세 번 살살이 살펴보니,  
가벼운 것이 홀연히 날릴 듯 하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손잡고 놀라서 발을 굴리네.  
“지난 세월 그 얼마이던가요,

容貌已瘦厄  
 其夜別哥哥  
 210歸葬先壟岡  
 小妹福力大  
 貴家充糟糠  
 尙書恩偏重  
 菲質祝姬媼  
 體弱壓珠翠  
 口飫羅膏粱  
 大恩無處酬  
 衄腸如刀鋸  
 我有交廣珍  
 220千筩復萬箱  
 燦燦雲章纈  
 天吳及紫鳳  
 煌煌報恩字  
 跟肘明白彰  
 親手刺繡紋  
 有淚濕汪汪  
 今行載之去  
 庶幾痊膏肓

251朝廷嘉純彦  
 策勳金印鎔  
 賜爵唐城君  
 書名木天紉

261遼海數千里  
 名字何騰驤  
 客胡不聞此  
 264有耳如鼎鑠

용모는 벌써 쇠약해졌네요.  
 그날밤 오라버니를 이별하고,  
 先山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  
 貴家の 糟糠之妻 되었어요.  
 상서 은혜 편중돼서,  
 보잘 것 없는 저를 예쁜 여자로 보아줍니다.  
 약한 몸은 구슬로 가득하고,  
 맛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오빠의 큰 은혜 갚을 곳 없어,  
 애타기가 칼날로 도려내듯 했어요.  
 나에겐 널리 모은 보배 있으니,  
 천상자 만상자나 되어요.  
 빛나는 구름 무늬에,  
 天吳神과 紫鳳을 새긴 것도 있어요.  
 報恩의 글자 찬란하게 하느라,  
 팔꿈치가 닿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직접 손으로 수예문채 만드는데,  
 눈물이 솟아나 젖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차에 신고 가시면,  
 사무친 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純彦을 가상히 여겨,  
 책정한 공훈에 금도장이 찍혔네.  
 唐城君이란 벼슬내려,  
 木天紉에 이름을 썼네.

요동바다 수천리에,  
 이름글자 어찌 그리 드날리는고.  
 나그네는 어찌 이를 듣지 못하나,  
 귀가 술귀처럼 꽉 막혔네.

이 시는 「보은금」의 세 번째 작품으로, 한국 악부사에서 최장편으로 꼽힌다. 장편이기에 단락을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매 단락마다 「보은금」 앞에 병기된 사화와 의 관련 양상을 고찰하고 이어서 앞에서 다룬 홍순언 이야기 총체적 단락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1단락은 1구부터 14구까지이다. 온갖 물건을 살 수 있는 페르시아 시장에 나온 ‘보은’이라 수 놓은 비단 이야기이다. 부자도 고관도 아닌 홍씨 집에서 나온 비단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시상의 발단으로 삼았다. 의문을 가지게 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서사시의 일반적 전개와 다른 면을 보여준다. 처음 두구는 마치 중국의 장편 악부시 孔雀東南飛로 유명한 「焦仲卿妻」라 착각할 정도로 흡사한 표현으로 시작했다.<sup>12)</sup> 중국 작품과 겨룰만한 작품이 전개되리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총체적 단락에는 없는 내용이다.

2단락은 15구부터 38구까지이다. 앞 단락에서의 의문에 대하여 늙은이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늙은이는 가상의 허구적 인물일 가능성이 크지만 홍순언 야담을 당시에 박치복에게 구연한 무명의 실제 인물일 수도 있다. 작품 사화에는 없는 홍순언의 성품, 기개, 외모를 구체적으로 호감있게 표현한 데서부터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우호적이고 포양적인 의식을 읽을 수 있다. 돈을 제공한 의주 부자와의 관계와 대화도 사화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동지사를 따라 간 내용, 큰 도시에서 3배의 은값, 홍순언의 行裝의 모습을 표현한 데서 산문의 史話에서 느낄 수 없는 역동적이고 실감나는 抒情과 敘事를 느낄 수 있다. 총체적 단락의 1단락과 관련되며 여기에는 사화에서와 마

12) 중국의 5언 최장편 악부시 「焦仲卿妻」는 5언 357구(『玉臺新詠』의 이본에 따라 다소의 가감이 있음)이다. 중국문학사 등의 책에는 ‘孔雀東南飛’로 기록된 예가 많다. 두 명칭 모두 올바른 제명은 아니다. 공작동남비는 작품 첫구를 따온 명칭이고 초중경처는 ‘초중경처의 작품’이라는 뜻에서 불리어진 명칭이기에 실제의 제명은 잃어버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부분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가 보은금의 첫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찬가지로 은을 빌려주는 부자가 등장한다. 총체적 단락에는 이 부분이 없다.

3단락은 39구부터 54구까지이다. 처음 가보는 중국의 이국풍, 새로운 것에 대한 신비감을 나타내는 정감적 표현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가장 핵심이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天下第一娼’은 사회의 표현 그대로를 옮겨 놓았다. 아름다운 집임을 나타냄에도 비파나무 있는 담장, 황금색의 문, 찬란한 들보, 진분홍 현판 등도 사회에는 없는 표현으로, 미인을 돋보이기 위한 분위기를 허구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49구부터는 홍순언의 창루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의 감흥을 작가가 대신 나타내고 있는데 마음의 동요와 배회의 행동은 사회의 분위기를 넘어선 작가 박치복의 마음에서 결정된 것이다. 53, 54구의 창루에서 지불할 수고비를 생각해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과 행위는 서사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 사회는 물론 다른 홍순언계 이야기 류에서는 볼 수 없는 허구적 요소이다. 이 단락은 총체적 단락 2, 3단락이 함께 수용되어 있으나 작품 사회와 마찬가지로 酒婆의 媒介는 없다.

4단락은 55구부터 70구까지이다. 홍순언은 용기를 내어 들어가나 주위의 황량함에 놀라고 앞에 싸인 꽃처럼 예쁜 여인을 만난다. 작품 사회에도 나이 17-18세로 살결이 고와 천인 같다고 했다. 이를 수용한 작품에서는 예쁜 모습이 동방을 비추고, 사모할 수 있어도 친압할 수 없으며, 소상강가의 신선이라 했다. 술상도 깔끔하고 이부자리도 펴 놓았으며 밤은 깊어 등불은 이삭처럼 타오르고, 요리도 준비했다. 홍순언이 미인을 향해 일어나는 이성적 감정과 감흥이 최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 단락에서 반전된다. 이 단락은 총체적 단락 6을 수용했으나 분위기 묘사나 감정의 표출은 다른 어떤 서사보다도 꺾인다.

5단락은 71구부터 80구까지이다. 71, 72구는 4단락과 5단락 사이의 삽입구로서 앞 뒤 어디에 붙여도 가능하다. 순언이 마음 속으로 동침

을 하려던 여인은 벽을 등지고 울고 있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된다. 작품 사회에서는 취침에 들어가려는데 여인은 촛불을 등지고 슬피 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에 비해 작품은 허구적 요소를 더 첨가했다. 이 단락의 핵심은 순언과 여인의 대화이다. 순언은 여인에게 우는 까닭을 묻고 여인은 슬픈 일이 없다고 했다. 총체적 단락에는 없는 내용이다.

6단락은 81구부터 118구까지이다. 우는 까닭을 재촉하는 순언의 청을 이기지 못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설명한다. 여인의 출생과 고향, 아버지를 따라 서울 생활 10년, 외동딸을 두란향같이 키움, 여인의 귀한 성장, 간혹들의 작란, 아버지의 죽음, 유해의 타향 안치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시적으로 변용했다. 여인의 일대기처럼 순차적이다. 단락의 후반부에서는 여인은 부친의 유해를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하자 비장한 각오를 설명한다. 여자는 종신토록 한 지아비만 섬겨야 하고, 죽어도 곧은 마음 변하지 않겠다는 정절의 표현과 희망을 말한다. 이어서 순언의 고향이 멀고 아득하기에 고니가 되어서라도 대양을 횡단하고 싶다고 한다. 나중에 자신을 북망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이 단락은 여인의 일방적인 독백이다. 앞 단락의 순언의 물음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매우 장황하고 구체적이며 역동적으로 변용되었다. 작품 사회에도 이 부분이 길고 구체적이다. 몸을 팔아서라도 이장 비용을 마련하고 싶으나 ‘不更二夫’의 정절 때문에 芻糲를 하여 來生の 인연을 맺자는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시적 변용을 했다. 사회와 시 작품 양쪽 모두 여인의 대답을 표현한 단락이다. 이본들의 총체적 단락과 비교해 보면 이 단락은 총체적 단락의 7-1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본들 중에서도 『국당배어』, 『삼교만록』, 『서포만필』의 단락 줄거리가 이 단락과 유사하다. 「보은금」이 이들 단락을 수용했으나 구체적인 정감과 역동적이며 사실적 대화 내용은 이본들의 표현을 뛰어 넘는 변용이다. 허구적인 면이 첨가되고 보충된 면이 있기 때문인데, 산문의 이본들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충한 수준의

허구일 뿐 사건과 인물이 다른 허구는 아니다. 산문에서 느낄 수 없는 운율의 리듬으로 인하여 문학적인 맛과 멋을 자아내는 시적 변용을 했다.

7단락은 119구부터 162구까지이다. 순언과 여인의 대화가 핵심이다. 순언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져 미인에 대한 이성적 정감은 사라지고 숙연히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 한다. 본래 종의 자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작품 사화의 ‘賤隸’를 그대로 옮겼다. 중국이 생소하여 아가씨를 잘못 찾았다고 하고 두렵고 황송해 하며 전대 속의 돈을 주고 황급히 나가려 하자 여인도 놀라 명분 없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순언을 만류하면서 동기의 인연을 맺자고 하자 순언도 허락한다. 142-144구는 작가가 개입한 설명구이다. 이어서 여인의 간절한 부탁과 함께 절하며 순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팔에 성명을 새긴다. 순언과 여인의 관계는 여기서 절정을 이룬다. 후에 두 사람은 슬픔을 간직한 채 헤어지는 인사로 대화가 끝난다. 이 대화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와 배경을 연출하였다. 작품 사화의 내용을 확대적으로 수용했으나 돈을 받지 않으려는 여인에 대해 순언이 강권하는 모습과 동기를 맺자는 여인의 제의를 固辭하는 장면은 생략됐다. 작품 사화에서는 순언의 辭氣가 여인보다 강하나 작품에서는 여인의 사기가 순언 보다 강하며 여인이 설득력도 있고 적극적이며 대화량도 많아 여인 중심의 대화가 이루어진 점은 시적 변모의 새로운 양상으로 이해된다. 총체적 단락과 대비해 보면 7-2와 7-3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화의 대비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기를 맺으며 성명을 팔에 새기는 장면은 여타의 이본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상징성이 큰 허구로서 작품사화와 작품 모두를 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典據가 될 수 있다.

8단락은 163구부터 182구까지이다. 순언이 집에 돌아와 은을 팔아오게 한 성명 미상의 부자와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다. 부자가 먼 사행길

의 고생을 위로하기 위해 와서 술잔을 나누지만 순언은 은을 여인에게 주고 왔기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중도에서 도적을 만나 거의 죽을 뻔 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댄다. 이 부분은 사화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여타의 이본류에도 없는 것으로 작가가 임의로 첨가한 허구이다. 이 부분이 첨가됨으로써 시의 서사적 구성이 자연스럽고 극적인 면이 돋보여 흥미롭다. 순언의 거짓말은 더 심해져 중국에서 여러번 끼니를 잊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부자의 노여움을 받아 시가지 곳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사행길에 오르게 된다. 8단락은 총체적 단락 10, 11단락과 관련이 지어진다.

9단락은 183구부터 190구까지이다. 석상서가 홍순언이 중국에 사행 왔다는 풍문을 듣고 懸賞金榜까지 붙이고 요로에서 검문하며 순언을 찾는 장면과 부하들이 순언을 찾아서 성명을 묻고 답하는 광경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총체적 단락 11, 12와 관계가 되며 겹치는 부분이 있다. 현상금 이야기는 작품 사화에도 없고 여타의 이본들에도 없는, 작가 박치복이 설정한 허구이다. 현상금 문제가 첨가됨으로써 석상서와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극대화되었고 시상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며 흥미를 진작시킨다. 요사이의 범죄자를 현상 수배하고 체포할 때의 모습을 보는 듯, 또는 인기 연예인을 보호하며 안내하듯 긴장과 기쁨이 넘치는 시적 변용을 한 작가의 구상과 표현력이 뛰어났음을 느끼게 한다.

10단락은 191구부터 234구까지이다. 으리으리한 병부의 석상서와 부인이 된 여인과 재회하는 장면이 핵심이다. 작품 사화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총체적 단락 12, 13과 관계가 된다. 시에서는 앞에서 석상서라 하고 뒤에서는 대인이라 했다. 석상서가 순언에게 장황하게 묻는 모습, 여종들이 시끄러이 다니는 모습, 官府 안의 분위기와 威嚴 등은 귀부인이 되어 주렴에 가려 있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이어서 주렴이 걷히고 옥색의 밝은 달 같은 부인이 순언과 재면하게 된다. 순언이 너무 변한 여인 여인이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발을 구르는 모습부터가 매우 역동적이다. 순언은 듣고 있는데 여인은 일방적으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다. 순언의 모습이 쇠약해진 점, 선산으로의 移葬, 석상서의 부인이 된 이야기, 석상서의 아내 사랑, 好衣好食하는 부유한 삶을 누린다고 여인은 거침없이 말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순언의 은혜를 갚지 못해 마음 아팠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고 한다. 이어서 가장 핵심인 ‘은혜 갚을 비단’ 즉 「報恩錦」 이야기를 한다. 천만 상자라는 양, 구름 무늬에 천오신과 봉황을 수놓은 정성, 특히 ‘보은’의 글자를 찬란하게 수놓느라 팔꿈치가 닳은 것이 명백히 보였다는 정성과 상황 묘사는 절정에 도달한다. 수를 놓다가 눈물이 나 비단을 젖게 한 일을 통해서도 이 감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 이제 비단을 가져가면 사무친 병이 나올 것 같다는 데서 여인의 은혜 갚음의 감정도 서서히 삭아진다. 이어서 첨가 부분이 삽입되는데 순언의 놀라움과 의아함, 상서가 아울러 융숭한 대접을 하고 거만금과 옥과 구슬을 상으로 내린다. 작품 사화의 핵심 내용을 확대해 수용하였다. 총체적 단락 13, 15를 수용한 관련성이 있다. 총체적 단락 14 종계변무에 대해서 박치복은 사화와 작품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박치복은 듣지도 않았고 기록된 것을 보지도 않았다고 생각된다.

11단락은 235구부터 254구까지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이 위태롭게 되자 조정에서 순언 등을 다시 중국에 보내 원군을 요청하여 임란을 승리로 이끈 내용이다. 왜군들과 대항할 수 없는 미약한 국력과 국운이 나빠 명나라의 원병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왕명을 받든 사신이 7일간 통곡하고 명나라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참소가 일고 방해가 생긴다. 그러나 서상서는 순언의 높은 뜻에 감동되어, 참소를 물리치고 이여송에게 명령하여 조선을 돕게 한다. 명의 장수와 군사의 도움으로 일거에 왜군을 물리치고 난리가 평정되자 명나라에서도 기뻐하는 내용을 시로 썼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조정에서 순언을 당성군에 봉한 내용을 썼다. 작품 사화를 확대적으

로 수용하여 시적 변용을 했다. 총체적 단락 17, 18을 확대적으로 수용하여 작품화한 관련 양상이 나타난다. 총체적 단락 16은 사회와 작품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작가가 듣거나 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12단락은 255구부터 끝까지이다. 임란 월병이후 조선과 명과의 우호적 외교활동으로 무역이 통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되었으며 홍순언은 석송을 능가하는 부자가 되었다는 요지이다. 실제로는 석송을 능가할 수 없었겠지만 시의 과장적 의미로 변용했다. 끝 부분에서는 순언의 이름이 중국에까지 떨쳐졌다고 하여 홍순언을 포양하고 있다. 영사악부의 포폄적 기능을 발휘한 부분이다. 마지막 두구 즉 263, 264구는 앞의 15구 늙은이의 전하는 말이 비로소 끝나는 부분이다. 늙은이가 한 말을 듣지 못한 솔귀 같은 나그네를 던지시 꾸짖고 있다. 나그네와 늙은이는 작가가 설정한 허구의 인물이면서 작가와 독자를 상징적으로 꾸민 것으로 보인다. 늙은이는 이야기의 구연자에 가깝고, 나그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가깝다. 구연자는 내용을 기록하는 작가와 밀접하고, 듣는 사람은 작품을 읽는 독자와 밀접하다.

이상은 작품의 구성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다시 전체적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두 부분이 나그네가 페르시아 시장에 가서 비단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된 데서 출발하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노인의 구연으로 시작해서 노인 이야기로 작품의 끝을 맺는 구성을 하고 있다.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원인을 설명하는 시적 변용을 통해 일반적이지 않는 특수한 구성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음 두 구는 보은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공작동남비’의 은유적 상징으로 시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두 구도 악부시의 상용구인 군불건, 군불문을 사용한 청유적 표현으로 시적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크게 보면 노인의 이야기가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화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화체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 내용이 많다. 대화는 상대해서 이루어지기에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다. 실제 대화 내용의 싹구를 추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싹구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對話相對	話者	對話內容	詩句順序	詩句數
富者和 순언	부자	銀을 팔아 오도록 부탁	30-32	3
	순언	허락	34	1
순언과 여인	순언	여인의 우는 이유 물음	73-74	2
	여인	여인의 대답	75-76	2
"	순언	여인을 위로함	77-80	4
	여인	여인의 신세 설명	83-118	36
"	순언	신세 설명	121-128	8
	여인	은을 받고 형제되기를 원함	132-141	10
	여인	형제의 인연 허락 요망	145-148	4
"	순언	이별 인사	157-158	2
	여인	이별 인사	161-162	2
순언과 부자	순언	은을 잃었다고 거짓말	167-172	6
	부자	화내며 순언을 꾸중	174-176	3
순언과 여인	여인	순언을 재회하고 보은금 이야기	207-228	22
	순언	(응대 생략)		

위의 내용을 보면 「보은금」은 상당 부분 대화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총 264구인데 105구가 대화 내용이다. 이 가운데서 92구가 순언과 여인의 대화이다. 나머지는 사건 서술과 배경, 보조적인 삽입구이다. 사화 내용에도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입체적

이고 역동적인 시적 구성을 한 악부시로 변용한 것이다.

박치복의 악부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사악부로서 每篇 3수의 작품을 썼다는 것이다. 주)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은금」도 마찬가지이다. 매 편 3수의 의미는 1수로서는 작가의 창작적 욕구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작 태도와 관련이 있다. 3수의 분량을 1수로 하는 장편을 써도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은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보은금」의 전체적 구성 즉 1편 3수의 시적 변용 양상도 특이하다. 제 1수는 잡언 8구로 여인의 독백이고 제 2수는 잡언 9구로 홍순언을 포양한 작가의 사평적 서정이며 제 3구는 5언 264구로 홍순언 이야기의 확대적 수용이다. 시적 변용과 형상화 방법으로 말하면 ‘응축1 - 응축2 - 확대’의 구성이다.

작가는 ‘홍순언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이러한 시적 변용을 이루었다. 이를 위하여 순언, 여인, 부자 등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시적화자가 되기도 하고, 관찰자적에서 입장에서 사건 전개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끝 부분에서는 사평가로서 인물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작가의 다양한 역할은 악부시를 포함한 서사시 계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은금」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 4. 樂府詩的 變容의 의미

이복휴의 「보은단」과 박치복의 「보은금」의 악부시적 변용의 의미는 사화인 ‘홍순언 이야기’ 보다 이를 시로 변용시킨 모습이 더 낫다는 작가의 창작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악부시로의 변용은 일반 시 보다 다른 노래의 의미를 지닌 시로 창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악부시가 노래로 불리거나 음악의 곡조로 연주된 것은 아니지만 악부라 한 이상 작가가 노래를 염두에 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작가 나름대로는 일반

시와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복휴, 박치복은 우리나라 악부시 작가들 가운데서도 중국 악부의 성률을 몰라도 한국의 성률로 어느 정도의 노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부시적 의미는 큰 것이다. 두 사람의 악부관을 본다.

“진실로 반드시 그 절주를 터득하지 못했더라도 단지 심구상에 멍하니 스스로 감발한 천기를 얻으면 느리고 급하고 높고 낮게 희롱함이, 오음이 서로 변하는데 맞지 않는지를 어찌 알리오. 내가 만학에다 더욱 얻은 바가 없어서, 다만 맑게하고 탁하게 하고 넓히고 좁히는 정도에 있어서 간략히 호응토록한다.”<sup>13)</sup>

“어떤 이가 또 의심하여 ‘악부 짓는 것은 성률·음절을 급선무로 해야 하는데 그대가 그것을 근심하지 않은 것은 분수없는 여자가 성균관에서 모양 내는 게 아닙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夔의 음악이 시(언지)에서 시작되었고 邠風풍의 시도 그 절주가 변해서 雅와 頌이 되었는데 어찌 먼저 뜻을 단판에 새긴(박자 맞추는)데 얽매여 반드시 여기에 맞추도록 하려 하십니까? 가야할 때 가고, 부득이 그쳐야 할 때 그치면, 조출하고, 넘쳐나고, 줄어들고, 살찌는게 저절로 되니 (그것은) 음악 가락을 맞추는 자의 權道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음이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하였다.<sup>14)</sup>

이복휴와 박치복은 악부관이 일치한다. 한국적 악부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작품 모두를 略式과 權道에

13) 李福休, 「海東樂府自序」, “...固未必其節奏之能得 而但其心口上窅然 有得自發天機 則其緩急高低之弄 安知其不合於五音之互變耶 余以晚學 尤無所得而但於清濁闊尖之度 略以口爲應...”

14) 朴致馥, 『晚醒集』권3 장2 「大東續樂府序」 “...或又疑 樂府之作 急於聲律音節 而子不之恤 不幾於褻穢女之學宮樣粧乎 余曰 不然 夔之樂 是於言志 邠風之詩 變其節 而爲雅頌 則曷先意拘拘於檀板之刻 而必求合於是乎耶 行乎所當行 止乎其所不得而止 而廉濫瘠肉 自在節樂子之權道 此叶音之所由起也...”

의해 노래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창법을 기록해 두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두 번째 의미는 악부시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복휴의 「보은단」은 『해동악부』의 하나이고, 박치복의 「보은금」은 『대동속악부』의 하나이다. 작품집이 모두 중국 악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악부를 의미한 것이다. 중국에 대하여 우리를 차별화 한다는 것은 악부의 내용이다. 내용이 우리나라 것이다. 두 악부집이 모두 영사악부이기에 결국 우리의 역사를 내용으로 했다는 것이다. ‘홍순언 이야기’도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역사 이야기 즉 사화이기에 넓은 의미의 역사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두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를 쓴 시가 아니라 역사를 읊은 악부시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의미는 미천한 인물의 위대함과 신분 상승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를 통해 보면 실제 홍순언은 출신이 미천한 역관이였다. 그렇지만 당릉군에 봉해지는 신분 상승을 한 조선 시대 최고의 역관이였다.<sup>15)</sup> 임란에 원병의 도움으로 국가를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인물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여 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은단」보다 「보은금」이 포양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담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 중 특히 「보은금」만이 지닌 의미를 덧붙이기로 한다.

「보은금」은 한국의 근체 한시는 물론 악부시를 포함한 고체시 가운데서도 새로운 형식의 연작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姜浚欽(1768-1833), 韓楡(1868-1911)의 작품에도 연작시가 있지만 박치복의 작품은 그와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16)</sup>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

15) 이덕일, 『조선 최대갑부, 역관』(김영사, 2006)에서는 역관이 조선 초기 공무역과 사무역을 주도했으며 다양했던 역할을 밝히고 있다. 홍순언에 관해서도 『통문관지』, 『연려실기술』 등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16) 姜浚欽(1768-1833)의 『海東樂府』 「憂息曲」은 5수의 연작시인데 6,7,6,6,7구로 비슷한 분량으로 배열했으며, 韓楡(1868-1911)의 『汾陽樂府』도 「寶高

이 3수 중 셋째 수를 다른 두 수에 비해 특별히 길게 구성한 篇法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형된 압운법의 한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보은금」의 또 다른 의미는 서정을 함유한 장·단편시, 서정·서사시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 2수가 단편의 서정이라면 제 3수는 장편의 서사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문학의 흐름과 변화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하나의 양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보은금」은 중국 작품 「초중경처」를 생각해서 그와 유사한 작품으로 만들려는 작가 의식이 깔려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5. 맺음말

‘홍순언이야기’는 39개의 문헌에 전하는 전승력이 강한 야담 성격의 작품으로 조선후기 악부시 작가들에 의해 시의 소재가 되어 악부시로 변용되기도 했다. 이복휴의 『해동악부』에 실려 있는 「보은단」과 박치복의 『대동속악부』에 실려 있는 「보은금」이 그것이다. 두 작품 모두 영사악부의 특성인 사화를 작품 앞에 병기하는 ‘사화-작품’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두 작품의 소재가 된 두 편의 사화는 홍순언계 야담의 내용과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있다.

이복휴의 작품 사화는 같은 계열의 야담과 기본 구조는 같다. 그러나 여인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고, 사건의 전개과정과 배경을 서술함에 있어서 事實性を 중시한 점, 宗系辨誣사건 등에는 부분적인 쌍행의 주까지 붙인 점, 石星이 임란 때 조선을 도운 후 일본과 화의 사건으로 棄市된 사실을 기록한 점은 같은 계열의 야담에 없는 특이한

---

笙」4,4,6구의 3수, 「見龍潭」4,4,6구의 3수, 「老人舞」4,4,6구의 3수, 「判書笠」4,4,4구의 3수로 상호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것이다. 이를 수용한 「보은단」은 전반부 5언 6구, 후반부 7언 8구의 잡언의 악부시적 변용을 했다. 심향란이 홍순언의 도움으로 소원을 이루고 은혜에 보답하는 비단을 주는 독백이고 후반부도 여인이 고마움을 갚기 위해 힘쓴 독백이 핵심이다. 마지막은 석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다. 작품 뒤에는 보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을 도와 준 홍순언의 義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심여인의 信을 貶刺하는 산문의 史評이 병기되어 있다.

박치복의 작품 사화는 이복휴를 포함한 같은 계열의 야담과 기본 구조는 같지만 몇 요소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주 부자의 요청, 여인의 자결과 내생의 인연, 형제의 인연을 맺은 후 바늘로 팔에 이름 새김, 순언 귀국후 錢主로부터 고통, 장기간 流離 등은 이복휴를 포함한 같은 계열의 야담과는 다른 특이한 화소이다. 이를 수용하여 변용한 「보은금」에는 작품 사화의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시의 구성과 변용 양상에는 새로운 면이 나타나 있다. 1편 3수의 연작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3수의 균형적인 구성이 아닌 ‘응축1 - 응축2 - 확대’의 불균형의 형태를 구성하여 새로운 연작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 3수는 5언 264구로 중국의 최장편 악부시 일명 ‘공작동남비’인 「焦仲卿妻」를 본받은 듯한 표현으로 출발하여 작품사화의 순차적인 전개 과정을 수용해서, 주인공들의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대화형식의 표현을 핵심구성으로 하고, 기타 사건, 배경, 분위기를 서술하는 삼입구를 보조적 구성을 하는 모습으로 변용했다.

‘홍순언 이야기’의 악부시적 변용의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작가 이복휴와 박치복 모두 약식과 권도에 의한 성률로 한국적 악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수용, 변용한 「보은단」과 「보은금」을 ‘노래’로 불러 전승과 교훈을 주기위한 작가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두 작품이 실려 있는 작품집 『해동악부』와 『대동속악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을 통해 ‘한국 악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두 작품 모두 천미했던 홍순언의 위대함과 신분 상승의 긍정적

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은금」은 장·단편을 아우르는 악부시와, 서정·서사를 아우르는 악부시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문학의 흐름과 변화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양태라 하겠다.

**주제어** ; 홍순언(Hong Sun-eon), 이복휴(Lee Bok-Hyu), 보은단(Boeundan), 해동악부(Haedongakpu), 보은금(Boengum), 박치복(Park Chi-Bok)

## 참고문헌

### <자료>

李福休, 『澹村集』 李福休, 『海東樂府』 朴致馥, 『晚醒集』  
李 瀾, 『星湖僊說』 金萬重, 『西浦漫筆』 朴趾源, 『熱河日記』  
李源命, 『東野彙集』 『靑丘野談』

### <논저>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서, 1996.  
金榮淑, 『韓國詠史樂府研究』, 경산대학교 출판부, 1998.  
이덕일, 『조선시대최대갑부-역관-』, 김영사, 2006.  
지세화, 「漢代 民間 樂府詩의 敘事性 考察」,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2004.  
白源鐵, 「大東續樂府 資料考」, 『고문연구』11, 한국고문연구회, 1998.  
李慶善, 「洪純彦傳 研究」, 『한국학논집』3,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3.  
정명기, 「홍순언 이야기의 갈래와 그 의미」, 『東方學志』4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김석희, 「홍순언일화의 전변과정에서 본 서포의 문학세계,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986

김영숙, 「설씨녀전. 이광사의 ‘과경합’ 구성과 삼국사기 ‘설씨녀’전 수용  
·전승양상」 『한민족어문학』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Abstract>

The Transforming Aspect into Yue Fu and Meaning of  
'Hong Sun-eon Story'

Kim, Young-Sook

As an unofficial historical tale which was handed down orally and recorded in 39 documents, "the Hong Sun-eon Story" was transformed into Yue Fu by the late Joseon writers. This story is recorded in "Haedong Akpu" written by Lee Bok-hyu with a title of "Boeundan" and in "Daedong Sok-Akpu" written by Park Chi-bok with a title of "Boeungum." The historical story recorded in the front part of the Lee Bok-hyu's literary work has the same basic structure as any unofficial historical tal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at the name of its female character is identified and the story development and background are described in detail. This story was transformed into Yue Fu with a structure of 5 letters and 6 phrases in the first half and 7 letters and 8 phrases in the second half, and is describing a woman criticized after killing her husband to repay someone's kindness.

The historical story written by Park Chi-bok has the same basic structure as any unofficial historical tale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at brotherhood ties are formed and their names are tattooed on their arm by a needle in the story. "Boeungum" accepted the original story but adopted a new poetic structure and style. It has the form of serial poetry consisting of 3 separated poems, and shows a new type of serial poetry by adopting not a balanced

construction but an unbalanced construction of 3 poems like "condensation 1 – condensation 2 – extension." Its theme is to praise the truthfulness of main male and female characters. Especially, in the third poem, the dynamic and three-dimensional dialogue of main characters was constructed as the main part, and episodes describing the other events, backgrounds and atmospheres were constructed as subsidiary parts.

The transformation of "the Hong Sun-eon Story" into Yue Fu is meaningful for some reasons. Both Lee Bok-hyu and Park Chi-bok believed Korean style Yue Fu could be composed by tunes using informality and political expediency. They also thought they could make literary works as songs, if transformed by accepting oral stories.

김영숙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전화: 053-819-0131(연구실)  
 e-mail: seukam@dhu.ac.kr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